

“코로나 극복의지 다지며 마라톤 갈증 싹~ 풀었습니다”

제56회 광주일보 전국마라톤대회 승촌보 일대에서 열려
주자간 방역 거리 유지하며 10km·20km 구간 레이스 펼쳐

호남마라톤을 대표하는 '제56회 광주일보 전국 마라톤대회'가 6일 광주시 남구 승촌보(영산강 문화관광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광주일보, 전남문화, 아시아문화가 주최하고 광주육상경기연맹이 주관했으며, 마라톤 저변 확산과 생활체육 활성화, 마라톤 동호인들의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주최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풀코스를 없앴고 마라톤 코스도 번잡한 도심을 피해 비교적 안전한 승촌보 구간으로 변경하는 등 안전에 총력을 쏟았다.

대회는 비경쟁으로 치러졌지만 국내외 참가자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적절한 레이스 거리를 유지하며 마라톤을 즐겼다.

마라토너들은 이날 10km, 20km 구간으로 나뉘어 레이스를 펼쳤다. 승촌보-나주대교(10km반환)-영산고(하프반환)-승촌보를 거치는 코스를 달렸다. 참가자들은 오전 7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출발선을 나섰다. 주자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출발 시간을 7시로 정하되, 7시30분까지 출발시간을 충분히 연장해 나눠 출발하도록 했다.

마라토너가 자신의 기록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기록향상에 참고하도록 자동계측 시스템도 적용했다. 참가자들의 배변에 기록측정용 칩을 부착해 출발과 완주시에 공식 기록이 찍히도록 했다.

간객들은 안전한 방역환경을 구축한 광주일보 마라톤 대회에서 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드러냈다.

20km 코스에 도전한 정현(북구)씨는 “코로나19로 마라톤대회가 취소되면서 10개월여 달리지 못했는데,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 왔던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생겨 기분이 좋다”며 “방역 수칙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겠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 커다란 규모로 마라톤 대회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참가자도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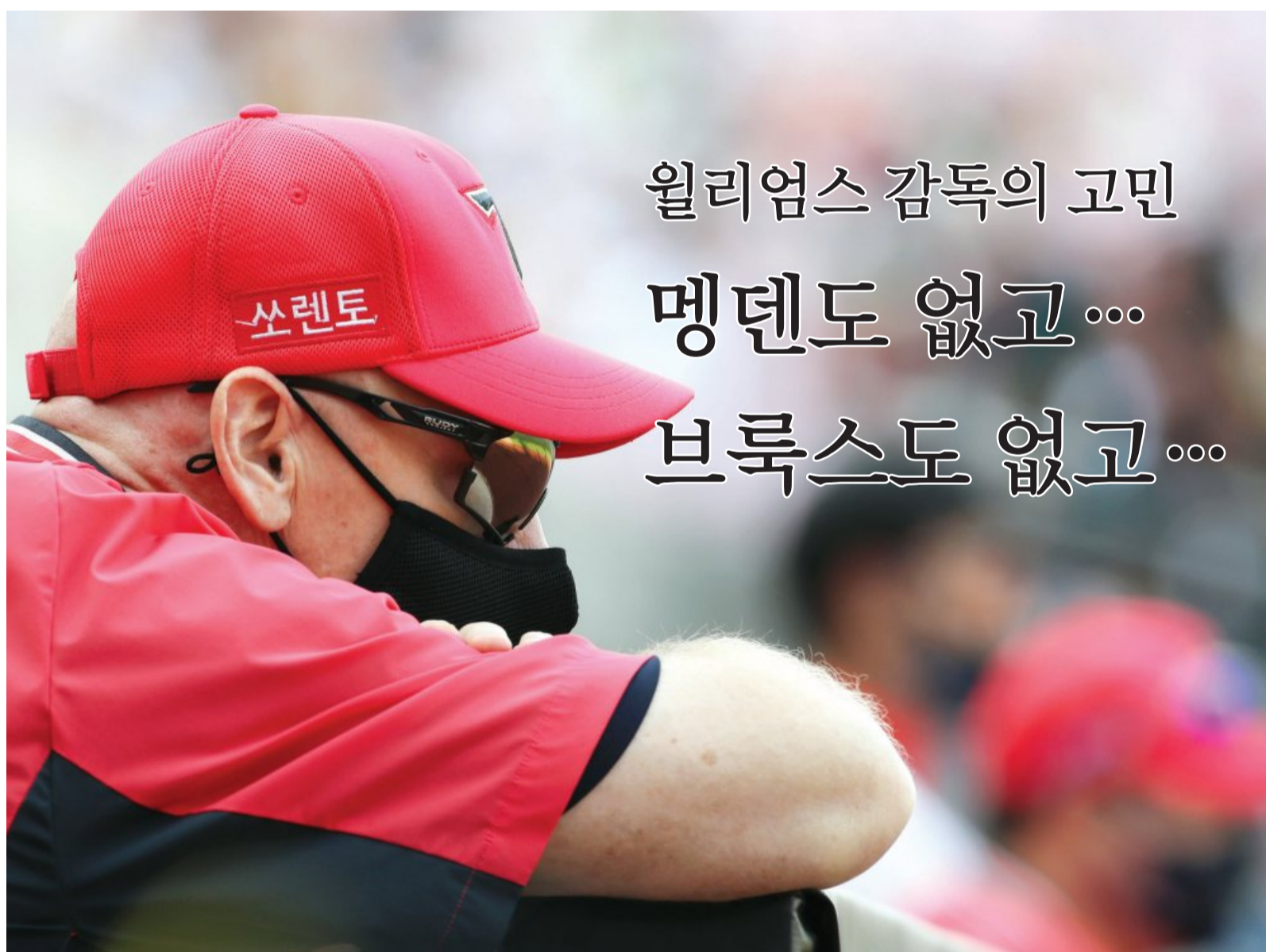
20km 코스를 뒀 산토시 쿠마르(Santosh Kumar-인도)씨는 “평소 체력 단련 삼아 마라톤을 자주 해 왔는데, 이번 대회 소식을 듣고 홀로 참여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라도, 달릴 수 있으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파이팅’할 수 있어 기분 좋다. 하프 코스를 2시간 내로 완주한다는 개인적 목표도 꼭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 주최측은 물론 참가자들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했다.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 문진표 작성 등 절차를 준수했다. 주최측은 대회 참가지만 행사장 출입을 허용하고 대회장 전지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엄격하게 방역지침을 적용했다. 또 대회 당일 발열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참가를 자제해줄 것을 사전에 당부하기도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6일 광주시 남구 승촌보에서 열린 제56회 광주일보 전국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마라토너들이 거리를 벌이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코스를 달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윌리엄스 감독의 고민
멥덴도 없고...
브룩스도 없고...

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1 KBO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KIA 윌리엄스 감독이 덕아웃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KIA 멥덴·브룩스 팔꿈치 통증
엔트리서 빠져 마운드 초비상
이민우·차명진·최용준에 기대



젊은 마운드의 패기와 야수 베테랑의 경험으로 '호랑이 군단'이 부상 위기를 넘는다.
KIA 타이거즈 야수진의 부상에 이어 이번에는 마운드에 부상이 겹쳤다. 5월 26일 KIA의 외국인 투수 다니엘 멥덴이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빠진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에이스' 애런 브룩스까지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브룩스 역시 팔꿈치 통증이 문제다.
윌리엄스 감독은 브룩스의 말소에 대해 “지난 한화전 던지고 나서 팔꿈치 붓기가 있어서 검진했다. 굴곡근이 부어있고 불이 조금 차 있어서 조심하는 차원에서 말소하게 됐다. 붓기가 얼마나 빨리 가라앉느냐에 따라서 복귀 시점이 결정된다. 몸 상태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멥덴과 브룩스 모두 큰 부상은 아니어서 복귀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멥덴도 캐치볼 등을 하면서 피칭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팀의 원투펀치가 동시에 빠지면서 KIA는 '토종선발진'으로 6월 초반을 꾸려나가기 된다.

KIA는 일단 6일 이민우를 다시 풀업했다. 이민우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여파로 이의리가 엔트리가 말소되면서 특별 엔트리로 1군에 합류, 지난 5월 30일 KT전에서 선발 등판했다.
여기에 선발 후보로 준비를 했던 차명진이 브룩스를 대신해 4일 엔트리에 등록되면서 선발 한 자리를 채우게 된다.
차명진은 5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팀이 2-8로 크게 뒤진 6회초 등판해 올 시즌 첫 1군 등판을 소화하며, 위닝업을 끝냈다.
차명진은 유강남을 유격수 망볼로 돌려세운 뒤 라모스를 1루 직선타로 잡았다. 그리고 김민성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삼자범퇴로 첫 등판을 끝냈다.
윌리엄스 감독은 차명진과 함께 선발 후보로 준비 중인 '비밀 병기' 최용준도 지켜보고 있다.

최근 세 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의 발판을 놓은 임기영을 중심으로 KIA는 기회를 얻은 신예 투수들의 패기로 위기 극복에 나서게 된다.
최형우의 가세로 '경험'을 더한 야수진이 마운드에 힘을 보태줘야 한다.
KIA는 지난 4일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나온 최형우의 끝내기 안타로 4-3 승리를 거뒀다.
아직 100% 전력은 아니지만 최형우가 가세하면서 팀 타선의 위압감이 더해졌다. '최고참'이 돌아오면서 덕아웃도 한층 든든해졌다.
최형우는 끝내기 주인공이 된 뒤 “타석에서 원래 소리를 잘 안 듣는데 타석에서 후배들 응원 소리가 정말 많이 들렸다. 너무 치고 싶었다. 보답하고 싶었다”고 언급했다.
옆구리 부상 악화로 방망이를 내려놓았던 '주장' 나지완도 기술 훈련을 앞두고 야수진의 무게감을 더해줄 전망이다.
한편 최형우가 빠진 사이 팀의 최고참으로 덕아웃 리더 역할을 해줬던 나주환이 6일 이민우가 등목되면서 엔트리에서 빠졌다. 김선빈이 '임시주장'을 맡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동성고 실수 연발 ... 황금사자기 16강 실패

청주 세광고에 4-9 패배

광주동성고가 실수 연발로 황금사자기 16강 티켓을 놓쳤다.
동성고가 6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75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부리그 왕중왕전 32강전에서 4-9로 청주 세광고에게 패했다.
동성고가 험난한 1회를 보냈다.
선발 신현민이 선두타자 박주원에게 내야안타를 맞으며 1회를 시작했다. 상대 번트 타구가 높게 뜨면서 포수 조승혁이 잡아 아웃카운트를 만들었지만 이어 볼넷이 나왔다. 헛스윙 삼진으로 투아웃을 잡은 뒤에는 노석진의 안타에 선취점을 내줬다.
그리고 볼넷으로 2사 만루가 됐고, 류주열에게 중전안타를 맞으면서 동성고가 1회 3실점을 했다.
이어진 1회말 공격이 아쉬웠다.
선두타자 김도영이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투수의 견제구가 빠진 사이 3루까지 내달렸다. 하지만 3루수 플라야와 삼진이 나오면서 김도영의 발이 묶였다. 그리고 상대 유격수 실책으로 겨우 1점을 기록할 수 있었다.
1회를 넘긴 뒤 신현민이 안정세를 찾았다. 3루수의 송구 실책으로 주자를 내보냈지만, 탈삼진

두 개를 더해 2회를 넘겼다. 3회 1사에서는 2루수 김주찬이 좋은 수비로 공을 낚아챈 뒤 유격수 김도영과 병살타를 합작하며 아까를 가볍게 해냈다.
그리고 3회말 동성고가 동점에 성공했다.
1사에서 구동규가 중전안타로 나간 뒤 임주찬의 좌측 2루가 나오면서 2-3루가 됐다. 서하은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보낸 동성고는 심명훈의 볼넷에 이어 김성도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다.
5회 역전까지 성공했다. 선두타자 구동규가 볼넷으로 출루한 뒤 노크와 임주찬의 희생번트로 3루까지 갔다. 그리고 폭투로 홈에 들어오면서 4-3을 만들었다.
4회 1사 1루에서 출격해 김성민을 앞세워 무실점으로 잘 버티던 동성고가 7회 3연속 실책으로 승리를 내줬다.
2루수의 포구 실책에 이어 투수의 송구실책, 그리고 포수의 송구 실책이 이어지면서 무사 만루의 위기를 자초했다. 몸에 맞는 볼로 동점을 허용한 동성고는 이상목에게 싹쓸이 3루타를 맞는 등 7회 6실점하며 승기를 내줬다.
이후 세 차례 공격에서 득점에 실패한 동성고는 4-9 패배를 기록했다. 눈길을 끌었던 김도영은 7회 번트 안타로 멀티히트에 성공했지만 팀의 패배로 황금사자기 도전을 멈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영암 출신 유해란, 연장에서 장하나에 '무릎'

KLPGA투어 롯데오픈

영암 출신 유해란이 우승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
유해란(20)은 6일 인천 배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롯데오픈(총상금 2억원) 최종일 연장전에서 장하나(29)에게 1위를 내줬다.
최종 라운드에서 이븐파 72타를 친 장하나의 1타를 잃은 유해란과 같은 합계 6언더파 282타를 기록해 동타로 4라운드로 마치고 연장전을 벌였다.
18번 홀(파4)에서 치른 연장전에서 유해란과 장 하나는 똑같이 두 번째 샷을 벵기에 빠트렸다.
유해란의 2m 파퍼트는 빗나갔고 장 하나는 1m 파퍼트를 집어넣었다.
이번 시즌 들어 두 번의 준우승으로 아쉬움을 삼켰던 장 하나는 7번째 대회 만에 시즌 첫 우승을 신고했다. 작년 11월 SK네트웍스 서경 클래식 이후 7개월 만이다.
7번 연장전을 치러 3번째 우승을 거둔 장 하나는 KLPGA투어 현역 최다승 기록을 14승으로 늘렸다.
/연합뉴스

우승 상금 1억4400만원을 보낸 장 하나는 KLPGA 1부 정규 투어 통산 상금 50억원을 넘어선 첫 번째 선수가 됐다.
장 하나는 KLPGA 정규 투어에서 쌓은 통산 상금은 51억3461만원이다.
장 하나는 지난주 E1 채리티 오픈에서 1, 2부 투어 합산 상금 50억원을 이미 돌파했다.
상금랭킹 2위(3억8700만원)로 올라선 장 하나는 대상 포인트에서는 이번 대회에 불참한 시즌 3승의 박민지(23)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1타자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유해란은 4라운드 18번 홀과 연장전에서 두 번 모두 보기를 적어내며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유해란은 4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쳤다.
2언더파 70타를 친 최혜진(22)은 1타가 모자라 연장전에 합류하지 못했다.
3위는 올해 들어 최혜진의 최고 성적이다.
챔피언 조에서 장하나, 유해란과 우승 경쟁을 벌여 한때 3타차 선두로 나섰던 박주영(31)은 1타를 잃고 공동 4위(4언더파 284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